

김옥균의 『갑신일록(甲申日錄)』 저술 목적*

김흥수**

〈차 례〉

1. 머리말
2. 김옥균의 재거(再學) 활동
3. 『갑신일록』 저술 목적
4. 맺음말

[국문초록]

갑신정변에 실패한 후 일본에 망명한 김옥균은 1885년 가을 무렵에 『갑신일록(甲申日錄)』을 집필하였다. 『갑신일록』 저술 목적에 대해서는 ‘일본의 배신을 폭로’하기 위해서라는 연구와 ‘정변의 정당성 천명’이 주목적이라는 연구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김옥균은 당시에 소이연(所以然)이 있어 『갑신일록』을 작성하였고, 그 기록은 사실이 아니라고 고백하였다. 집필 당시 김옥균의 필요에 따라 『갑신일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재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집필 당시 김옥균의 활동과 정변 당시의 정황이나 사실과 다르게 서술된 부분을 밝히면 『갑신일록』 저술 목적까지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변 실패 후 일본에 망명한 김옥균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재거(再學)를 꾀했다. 국내의 개화당이 절멸된 상태에서 이재원을 매개로 대원군을 끌어들이고, 일본에서는 고토 쇼지로(後藤象次郎)의 지원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제2의 정변을 일으키려 하였다. 이 계획에 부합하도록 『갑신일록』의 이른바 정강 제1조에 “대원군을 곧 모셔온다”라는 조항을 넣고 혁신 인사안에 대원군 계통의 인물을 대거 채워 넣었다. 그리고 갑신정변 전인 11월 29일에 고종이 김옥균에게 전권을 일임하는 밀칙(密勅)을 주었다는 기술은 고토 쇼지로와의 공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처럼 『갑신일록』은 정변의 기록임과 동시에 제2의 정변을 위한 허위의 기록이 섞여 있으므로 엄밀한 사료 비판이 요구된다.

[주제어] 김옥균, 갑신일록, 갑신정변, 대원군, 이재원, 고토 쇼지로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교양과 부교수

1. 머리말

김옥균(金玉均)은 정변에 실패한 후 일본에 망명하여 1885년 가을 무렵에 『갑신일록』을 집필하였다. 일본의 외교적 기밀이 많이 기술되어 몰래 필사되어 유포되다가 김옥균 암살 후에는 일본 신문에 번역되어 연재되고,¹⁾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책자로 간행되어²⁾ 일본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저작이 되었다.

이 『갑신일록』에 대해 ‘일본의 배신을 폭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는 견해³⁾와 ‘갑신정변의 정당성 천명’이 주요 저술 동기라는 의견⁴⁾이 대립하고 있으며 나아가 김옥균의 저작이 아니라 김옥균 등 정변 주도자의 애기를 듣고 일본인이 기록한 것이라는 의견⁵⁾도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갑신일록』이 김옥균과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가 협의하여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정변 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저술되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⁶⁾

필자는 일찍이 국내외 『갑신일록』 필사본 대부분을 수집하여 진위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⁷⁾ 이번의 연구는 그 후계 연구로 저술 목적을 천착하려는 것이다. 일찍이 김하원은 『갑신일록』이 1885년에 전개된 김옥균의 쿠데타

1) 『사가자유(佐賀自由)』 신문에 「갑신일록(김옥균의 遺編)」이란 제목으로 제1회(4월 17일)부터 제17회(5월 16일)에 걸쳐 연재되었다. 『메사마시(めさまし)신문』도 「갑신일기」라는 제목으로 같은 시기에 연재했다.

2) 대표적으로 『東邦關係(渡邊修二郎, 奉公會, 1894년 9월 20일 발행)』를 들 수 있다.

3) 山辺健太郎, 「甲申日録の研究」, 『朝鮮學報』, 17, 1960. 青木功一, 「金玉均傳原稿」と雜誌〈古筠〉- その探索及び〈甲申日録〉の否定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 1981.

4) 김사익, 『갑신일록』에 대하여(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김옥균』, 사회과학원 출판사, 1964;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김옥균』, 역사비평사, 1990). 李光麟, 「김옥균의 〈甲申日録〉에 대하여」, 『震檀學報』 33, 1972 『開化黨研究』(一潮閣, 1997; 초판 1973)에 재수록. 金鳳珍, 「甲申日録에 관한 일 연구」, 『한국학보』 42, 1986. 康玲子, 「甲申政變の問題點 - 『甲申日録』の検討を通して -」,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2, 1985.

5) 강범석, 『잃어버린 혁명-갑신정변 연구』, 솔, 2006. 강범석은 『갑신일록』의 집필자로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를 지목하였다(47쪽).

6) 김종학,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와 갑신정변(甲申政變): 미간사료 『井上角五郎自記年譜』에 기초하여」, 『한국 · 동양정치사상연구』 13-1, 2014. 김종학,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일조각, 2017, 328~342쪽.

7) 김홍수, 『갑신일록』의 진위에 대한 재고, 『奎章閣』 48, 2016.

再起運動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⁸⁾ 김옥균은 일본의 배신행위 폭로나 갑신정변의 정당성을 천명하는 과거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전개하고 있었던 제2의 쿠데타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갑신일록』을 집필하였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갑신일록』을 집필할 당시 김옥균의 정치활동과 연계시킨 점에서 매우 예리하지만, 정작 그 정치활동이 『갑신일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김옥균은 망명 생활을 후원한 수나가 하지메(須永元)에게 보낸 편지에서 갑신정변을 기록한 『기략(紀略)』을 작성했고, 그 『기략』은 당시 ‘소이연(所以然)’이 있어 급히 쓴 것으로 실제 사실이 아니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⁹⁾ 박영효(朴泳孝)도 “김옥균의 일기는 당시 군의 일시적 방편에 따른 것”¹⁰⁾이라 하였다. 따라서 김옥균이 당시 그렇게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소이연’을 밝히면 자연스레 집필 목적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갑신일록』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분석하면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추출할 수 있다.

2. 김옥균의 재거(再舉) 활동

『갑신일록』을 읽다 보면 그 자체로 완결된 게 아니라 후편을 예고하는 전편 같은 느낌이 든다. 특히 맨 마지막에 고종과 이별하면서 훗날 청천백일(靑天白日)의 때에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는 장면은 진한 여운을 남긴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고상한 이별이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갑신일록』 집필을 끝낸 시점에서, 재기하고자 하는 김옥균의 열망이 짙게 묻어 있다. 그리고 대가(大駕)를 따라간 홍영식(洪英植)의 죽음에 대해 “마침내 원세개의 독수에 걸렸으니 지금도 한이 맺힌다”라고 하였다. 홍영식을 조선에 남긴 이유는 『갑신일록』의 기술처럼 안과 밖에서 서로 호응하여 재기하

8) 金河元, 「金玉均의 쿠데타再起運動と『甲申日錄』執筆」,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8, 1991.

9) 김홍수, 앞의 논문, 264~266쪽.

10) 「박영효 선생의 서한」, 『古筠』 제2호, 1935년 5월 15일, 6쪽.

기 위함이었다. 전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의 아들인 홍영식은 개화당 안에 서도 온화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다케조에(竹添進一郎) 공사가 본국의 공식 훈령을 기다리지 않고 정변에 가담한 결정적 이유도 홍영식에 대한 신임과 관련이 있었다.¹¹⁾ 정변 직후에 홍영식이 우의정, 이재원이 좌의정에 임명되는데 왕족 이재원은 방패막이 성격이고 실제로는 홍영식 중심 체제였다. 재기에 필요한 중심인물이 사라졌으니 김옥균이 한이 맺힌다고 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김옥균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홍영식을 대체할 인물이 필요하였다.

정변에 실패한 김옥균은 박영효, 서재필(徐載弼), 서광범(徐光範), 이규완(李圭完), 신응희(申應熙), 임은명(林殷明), 변수(邊燾), 유혁로(柳赫魯) 등과 함께 인천으로 피신하였다. 치토세마루(千歳丸) 선장 쓰지 가쿠사부로(辻覺三郎)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들은 1884년 12월 11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13일 나가사키 항에 도착하였다.¹²⁾ 이후 개화당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보호를 받으면서 청일 개전을 회구하면서 재거를 모색한다. 갑신정변 때 40여 명의 일본인이 살해된 것을 명분으로 후쿠자와 유키치의 『時事新報』는 앞장서 주전론을 선동하고 遣清大使로 주전론자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가 파견되기를 바랐다.¹³⁾ 그러나 청일 개전을 회피한 이토 히로부미가 1885년 2월 28일 견청대사로 파견되면서 김옥균 등의 희망은 무망하게 되었다. 후쿠자와와도 이들을 멀리함에 따라¹⁴⁾ 재거를 위해 독

11) 1884년 11월 23일 우정총관 홍영식과 밀담한 다케조에는 “홍영식은 침착하고 온화한 인물인데 과격한 거사를 생각하는 정신은 (중략) 실로 죽음을 결심한 진정이 왕왕 말씨와 안색 사이에 흘러나와 거의 사람을 감동케 할 정도”라고 평하였다. 이전까지 다케조에는 개화당의 거사를 무리한 일이라고 자제시키는 입장이었다. 홍영식과 대화한 이날 다케조에는 “내정을 치료함에 극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화당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伊藤博文文書』 3, 83~90쪽.

12) 당시 도주하는 상황은 柳赫魯, 「甲申亡命の思出」(三城景明編 『韓末を語る』, 朝鮮研究社, 1930, 15~17쪽)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13) 高橋秀直, 日清戦争への道, 東京創元社, 1995, 168~170쪽.

14) 당시의 상황을 후쿠자와는 “옥균 등이 진정으로 재거를 기도하면 나는 비호할 수 없다. 그래서 지 지난날 이래 옥균 등은 나와 소통하지 않았다(唯玉均等眞企再舉 則僕不可袒護也 故去去月來玉均等復不通僕)”라고 했다(『井上角五郎日記』, 『伊藤博文文書』 제5권, ゆまに書房, 146쪽. 참고로 활자본에서는 ‘袒護’를 ‘袒護’로 잘못 탈조하였다(伊藤博文編, 金子堅太郎等校訂, 『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中卷, 1936, 57쪽).

자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885년 3월 김옥균은 장은규(張潑奎)¹⁵⁾를 대원군 집에 보내고, 이재원(李載元)과 어윤중(魚允中)에게도 편지를 전한다. 재기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임시대리공사 곤도 마사키(近藤真鋤)는 1885년 4월 28일 이때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외무경에게 보고하였다.

김옥균은 지난달 세이료마루(靑龍丸) 편으로, 조선 상인으로 동경에 체재한 장은규란 자를 밀사로 대원군의 집에 보내(이 상인은 일찍이 대원군의 愛歡을 얻은 자라 한다) 대원군의 부인을 배알하고 “박영효 등의 작년의 일거는 오로지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여 대원군을 청국에서 모셔 오려(迎還)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중도에서 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머리를 짜내 대원군 환국을 도모하고 독립의 기본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니, 대원군 부인이 매우 기뻐하여 “대원군이 귀국할 수 있다면 家財를 아끼지 않고 얼마든지 비용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전언만으로는 믿기 어려우니 박영효의 편지를 얻어 가지고 오라. 다만 당장의 비용으로 韓錢 천貫文을 준다”고 하면서 위의 상인 장은규에게 건네주니, 장은규는 바로 돌아가는 세이료마루 편에 탑승하여 다시 도쿄로 갔다 합니다. 그 밖에 김옥균, 박영효 두 사람이 이재원과 어윤중에게 밀서를 증정했는데 이재원과 어윤중의 답서도 가지고 돌아갔다 합니다.¹⁶⁾

15) 장은규는 유명이 장갑복이고 의화군(뒤의 의친왕) 이강의 생모인 귀인 장씨의 오라비이다. 장씨는 궁녀로 들어가, 민승호가 대원군을 축출할 때 공을 세웠다 한다. 이후 권세를 얻고 왕자를 생산하였으나 왕비의 눈 밖에 나 궁궐에서 쫓겨나고, 장은규의 형인 장흥규의 집에서 기거했다 한다(『日本外交文書』 19, 570~571쪽). 한편 후쿠자와의 명을 받고 조선 궁중의 사정을 조사한 이노우에 가쿠고로는(井上角五郎) 장은규가 장씨의 이복동생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장씨가 아이를 낳자 대원군 부인의 요청으로 장씨를 빈으로 승격시켰고, 왕비가 장빈 모자를 죽이려 하자 대원군의 별장 석과정에 숨겼다고 한다(『井上角五郎自記年譜』 28세 明治 19년, 15~26쪽). 장은규가 이재원에게 올린 편지에서 ‘老兄姊之事’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장은규는 장씨의 동생임이 분명하다(『本邦二潜伏』,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 1권, B03030199400 16/58). 이 자료는 B03030199400라는 레퍼런스 코드만 입력하면 아시아역사자료센터(www.jacar.archives.go.jp)에서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므로, 이하에서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 앞부분의 문서 제목은 생략하고 문서절과 레퍼런스 코드만 표기한다. 16/58은 총 58면 중 16면이라는 의미이다.

16)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 1권, B03030199200 8/47-10/47.

갑신정변 때 대원군의 환국을 도모했으나 정변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대원군을 모셔 오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김옥균이 대원군 측에 접근했음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얼핏 보면 이 자료는 “대원군을 곧 모셔 올 것. 조공의 허례는 의논하여 폐지함”이라는 갑신정변 개혁 정강 14개 조의 첫 번째 조항과 일치하지만, 김옥균이 장은규를 보낸 시점이 정변 실패 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국왕의 종형인 이재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그가 갑신정변 당시 좌의정으로 정변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김옥균의 입장에서는 이재원이 국내의 유일한 의지처였었으나, 종친이라서 처벌을 면한 이재원은 이 편지를 바로 국왕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는 국왕과 척족(戚族)이 박영효 김옥균 등을 유인하여 일망타진하기 위해 이재원을 미끼로 삼아, 그의 수족으로 장은규와 송병준(宋秉駿)을 일본에 잠입시켰다고 하여¹⁷⁾ 김옥균 등을 잡기 위해 국왕과 척족이 먼저 움직인 것처럼 서술하였다. 그러나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먼저 움직인 쪽은 김옥균이었다. 국왕 고종도 “봄 무렵에 역적 김옥균이 이재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원래 상대방의 계략을 미리 알아채고 그것을 역이용하려 하였으니”¹⁸⁾라고 하여 김옥균이 이재원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김옥균과 이재원이 왕복한 편지의 내용은 현재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서로를 탐색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국내의 정세를 탐색한 장은규는 5월 20일 무렵 고베(神戸)에서 김옥균을 만난다. 백춘배의 진술서¹⁹⁾에 따르면 이때 김옥균은 장은규를 불신했으나 백춘배가 “우리를 위해 사지에 출입한 자를 심복으로 대하지 않으면 누가 명령을 따르겠는가?”라고 설득하여 장은규를 다시 사정 탐색을 위해 조선에 보냈다고 한다.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 재기가 난망하다고 여기고 5월 26일 미국을 향해 떠났으나²⁰⁾ 김옥균은 여전히 제2의 쿠데타에 대한 미련을 버리

17)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下, 朝鮮總督府, 1940, 150쪽.

18) 『승정원일기』 1885년 11월 17일.

19) 『白春培供詞』(『舊韓國外交文書』 일안 1, 298-299쪽, 『日本外交文書』 19, 542쪽).

20) 『時事新報』 1885년 5월 28일.

지 못했다.

이재원이 송병준을 보내 2종의 물품과 함께 내웅한다는 뜻을 전하자, 김옥균은 아래와 같은 한글 편지를 이재원에게 보내 거사 구상을 밝힌다.²¹⁾

영사 중 한 자리나 강화유수 간에 한 자리를 얻거나 결사대를 비밀 모집하려 해도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니 가량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적어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선할 도리가 있으니 꼭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전영은 마땅히 금전으로 써 두목 몇 사람을 결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감이 영사 한 자리를 얻게 되면 이는 곧 일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중략) 지금 안에는 대감이 있고 밖에는 대강 두서가 잡혔으므로 이제부터는 은신하겠습니다. 1,000명 정도는 오늘 당장에라도 소집할 수 있으나 이 일은 반드시 깊이 생각한 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중략)

穆麟德(뮐렌도르프)이 俄國[러시아] 사관을 청하여 이미 도래하여 매우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끝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이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영하는 죽을죄가 있는바 사리를 모르고 뮐렌도르프란 놈을 데려온 것이 그의 죄입니다. 내가 뮐렌도르프 그놈을 죽이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조선인들이 뮐렌도르프 놈을 죽이고 싶어 하지만, 그놈은 청병에 요청해서 항상 몰래 보호받는다고 합니다. 그놈을 죽이는 것 또한 이번 계획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개 러시아는 좋든 싫든 경솔하게 상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나라를 위한 계획은 첫째, 외국 중 공정하고 강한 하나의 나라와 깊이 연계를 맺고 시종 그 보호의 힘에 의뢰하는 것이며, 둘째 국내에서 호응할 사람을 많이 결합하는 것이며 셋째, 일인을 대동하고 국내에 들어가 한번 신기한 효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제2책은 대감이 생명을 바치고 담당하고 있으며 제3책은 내가 맹세코 담당하겠습니다. 그중 첫째 방략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으나 이곳에서

21) 『譯錄金玉均寄李輔國書』(B03030199400 11-14/58); 『致沁留書 第一函』(『金玉均全集』 123~125쪽). ‘譯錄’이란 한글 편지를 한문으로 번역했다는 의미이다. 이 편지는 작성 일자를 알 수 없으나 “민응식이 평양에서 군대를 인솔하고 온다고 하는데”라는 구절을 통해 유추하면 6월 초 무렵으로 보인다. 평안감사 민응식이 6월 13일(음력 5월 2일) 800명의 병대를 이끌고 입경했다(『승정원일기』 1885년 5월 2일).

주선되는 대로 마땅히 자세히 알려겠습니다. 대감은 국내에서 주선하고 나는 국
외에서 주선하여 내외가 서로 호응하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다만 제1
책이 생각대로 되면 이것은 일이 시작되는 날이며 기타의 모든 일은 갖추었으니
그리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재원이 전영의 영사나 강화유수가 되면 자신이 1,000명의 병력을 이끌
고 가서 정변을 일으키고 공정한 나라에 보호를 의뢰하겠다는 구상인데 아
직 어느 나라에 의지할지는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보호
를 의뢰한 뮐렌도르프를 맹비난하고 있다. 후술하듯이 『갑신일록』에는 뮐
렌도르프에 대한 적개심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 이는 당시의 사실이라기
보다는 이 편지에서 드러나는 김옥균의 시각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장은규는, 군대를 대동하고 입정하여 당대의
세도가로 부상한 민응식에게 접근하여 김옥균을 살해하겠다고 제안한다. 민
응식은 민병석과 상담하여 국왕의 위임장을 만들어 주고 다시 일본으로 가도
록 하였다.²²⁾ 음력 5월(6월 13일-7월 11일) 자의 위임장²³⁾, 곧 고종의 밀지를
받고 고베로 돌아온 장은규는 이재원에게 편지를 보내 강화유수를 말도록
역설하였다. 김옥균이 沁營의 내용이 없더라도 강화도를 먼저 공격하고 다
음에 경성을 범하여 국왕을 강화도로 데려오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이재원이
강화유수가 되어 김옥균을 강화도에서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²⁴⁾

장은규의 요청대로 7월 1일 이재원이 강화유수에 임명되자²⁵⁾, 김옥균은
7월 18일자(음력 6월 7일) 편지에서 “강화유수에 제수된 것은 소원을 성취

22)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二卷(B03030200900 6/54).

23)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二卷(B03030200800 44/56). 뒤에 오사카사건이 발생
했을 때 김윤식이 高平 대리공사에게 장은규의 보호를 요청하면서 그가 대군주의 밀지를 받들어
역적 김옥균[玉賊]의 상황을 밀탐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B0303020090 10/54). 고베로 돌아간 장은규는 자금 지원도 받는데, 6월 22일 도미타 스즈키치
(富田鈴吉)가 500엔씩 5차례 2,500엔(현재 가치로 1-2억 정도)을 장은규에게 송금했다. 도미타
는 서울에서 송병준과 함께 상점을 개설한 이로, 송병준의 장사 밀전은 국왕의 내탕금에서 나왔다
한다(B0303020090 10/54).

24) 『譯錄張甲福上李判書書』(『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一卷, B03030199400 16/58).

25) 『승정원일기』 5월 19일.

했다”라고 반기면서 “(대원군이) 귀국 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 국사를 정돈할 지 모르겠습니다. 대감 역시 잘 조치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른이 혹 전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저번 편지에 첨부한 윤현에 올리는 서한은 아직 들여보내지 말고 그 환차를 기다려 바치기를 바랍니다”라고 대원군 귀국 후 그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쳤다.²⁶⁾

김옥균은 이전의 편지에서 당장이라도 일본에서 1,000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이는 허풍에 불과했다. 막상 이재원이 강화유수가 되어 거짓으로 내용하는 척 하자 강화 병영은 청 교관이 가르쳐 일본인을 좋아하지 않으니 일본 교관이 훈련시킨 전영과 연계를 도모하라거나 총 1,000자루 구매를 고종에게 상주하라는 등 실현 불가능한 일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한 이재원의 내용이 없자 김옥균은 마지막 기대를 걸고 고토 쇼지로(後藤象次郎)를 찾아간다. 당시의 상황을 백춘배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장은규가 적(賊, 옥균)의 급한 전보를 받고 불려 갔다 돌아와서 “지금 이미 형세가 무르익었으니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까닭을 물으니 “옥균과 함께 고토 쇼지로에게 가서 5천으로 크게 거병(擧兵)하기로 약속하였다. 장차 9, 10월에 강화를 암습(暗襲)하고 궁궐을 다시 침범하려 한다. 만약 일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어가를 나가사키로 옮기면 일이 반드시 잘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매우 놀라 “고토는 무얼 믿고 여기까지 이른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장은규가 “밀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더욱 놀라 “어떤 밀지가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장은규가 “지난해[上年] 옥균이 한성에 있을 때 面奏하여 국채를 얻고자 하면 御寶가 있는 文憑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옥새를 찍은 백지를 받고, 옥균이 옥새를 찍은 종이에 밀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고토에게 보여주자, 고토가 이것으로써 믿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²⁷⁾

26) 「譯錄張甲福上李判書書」(『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一卷, B03030199400 10/58); 「致沁留書 第一函」(『金玉均全集』126쪽).

27) 전게 「白春培供詞」.

위의 내용은 백춘배가 귀국 도중 고베에 들른 9월 3일(7월 25일) 장은규로부터 들은 얘기이다.²⁸⁾ 전언이라서 어느 정도 신빙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8월경에 장은규가 요코하마까지 와서 바로 고베로 돌아갔다”라는 일본 경시청의 보고²⁹⁾가 있는 걸 보면 완전한 허언은 아닌 것 같다. 고종의 밀지에 대해서도 이노우에 가쿠고로는 “일본당의 사람들도 한 사람의 대 세력가를 일본에서 고문으로 초빙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국왕은 ‘짐이 국사를 경에게 맡긴다’는 칙서를 써 이것을 고토 쇼지로 군에게 전한 一事이다. 본서는 김옥균 씨가 이것을 보관하고 亂後에 일본에 도주해 왔을 때도 가지고 있었다”³⁰⁾라고 강제 병합 직후에 회고한 적이 있다. 고토에게 전권을 맡긴다는 것은 의심스럽지만, 한때 권력을 장악한 김옥균이 도주할 때 옥새를 찍은 백지를 챙겼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찍이 1883년 김옥균은 이노우에 외무경과의 300만 불 외채 담판이 실패하자, 고토 쇼지로에게 자금과 무력을 지원해 주면 고종의 밀착을 얻어 그를 客卿으로 초빙한다는 밀약을 맺은 적이 있었다.³¹⁾ 아마 이때의 일을 상기하면서 김옥균이 고토 쇼지로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김옥균이 고종의 밀지를 고토에게 제시하였더라도 정변에서 실패하여 도주한 망명객의 요청을 들어줄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9, 10월(음력) 습격설은 국내에 널리 퍼져 10월 22일에 김옥균이 일본인을 거느리고 쳐들어온다는 유언비어가 돌 정도였다.³²⁾

아래의 9월 3일자(음력 7월 25일) 김옥균의 편지는『갑신일록』집필 착수 직전에 보낸 것으로, 저술 당시 김옥균의 상황을 아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저번에 보낸 4번째 서한의 답서를 받아 보지 못해 우울했는데 이번에 받아 보아 매우 기쁩니다. 이전 편지 중의 총기 구입 건에 대한 답이 없어 제가 이 일을 심사숙고했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천 자루에 한하여 사들이는

28) 『韓国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一卷(B03030200000 25/36).

29) 『韓国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三卷(B03030201700 15/50).

30) 井上角五郎, 「甲申事變の前後」(4), 『時事新報』1910년 8월 27일.

31) 『朝鮮改革意見書』, 『金玉均全集』, 亞細亞文化社, 1979, 109~116쪽.

32) 『袁世凱全集』제1권, 河南大學出版社, 2013, 60쪽.

공문 2건을 갖추어 그 1건은 일본 상인에게 위임하고 1건은 미국 상인에게 위임합니다. 모두 성명을 비워두고 편의에 따라 여기서 임시로 적어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은 이미 상주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아직 상주하지 않았다면 사유를 빨리 알려주길 바랍니다. (중략)

내가 염려하는 것은 태공(太公, 國太公 즉 흥선대원군-인용자)이 돌아온 이후에 혹시 공께 해를 끼치지 않을지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갑자기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을 터이니 공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일의 기미를 신중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그가 온 후에 만약 발작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는 마땅히 때를 봐서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임에 명분이 있으므로 대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 무력하게 와서 뜻을 잃고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기세에 따라 그를 유인하고 힘을 합쳐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거나 저거나 저절로 쓰임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매우 신중하고 은밀하게 부합하겠다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그 동정을 살피시고 수시로 몰래 알려 주십시오. 태공이 조선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 후에, 사세를 보아 움직일 만하면 움직이고, 절대로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략) 이번에 보내는 편지 1통을 대신 태공에게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³³⁾

강화 병영에서 사용할 서양 총을 산다는 명목으로 무력을 갖추거나 거사 자금을 마련하고 대원군이 귀국하면³⁴⁾ 거사를 함께 하자고 공작하라는 내용이다. 일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국내 개화당 세력도 절멸된 상황에서 김옥균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재거를 위해 민씨 척족의 대항마로서 대원군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무렵 김옥균은 자신의 심복인 백춘배와 가이 군지(甲斐軍治)를 조선에 보낸다. 백춘배는 김옥균이 동남제도개척사였을 때 종사관으로 울릉도 목재의 벌목에 종사하였고 가이 군지는 김옥균이 사적으로 고용한 인물이

33) 「譯錄金玉均寄李輔國書」(『日本外交文書』19, 543쪽; 「致沁留書 第三函」(『金玉均全集』127쪽;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B03030199400 8-9/58).

34) 대원군은 10월 2일 원세개의 호위를 받으며 인천에 도착했다(『袁世凱全集』1, 50쪽)

다. 이들은 같이 조선에 가기로 약속했으나 길이 어긋나 백춘배는 9월 말에 가이는 10월 18일에 각각 입경했다.³⁵⁾ 한편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9월 20일에 “지금 히로시마마루(廣島丸) 편으로 백춘배가 나가사키로 내려왔다. 22일 세이류마루 편으로 한국으로 건너간다고 함”³⁶⁾이란 편지를 가이에게 보내는 걸 보면, 가쿠고로도 이들의 파견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한성주보』 발간에 필요한 한글 활자 구매를 위해 1885년 7월에 일시 귀국한 가쿠고로는 9월부터 김옥균을 자주 만나 김옥균의 『갑신일록』 서술에도 관여하였다. 가쿠고로는 10월 28일 인천 도착, 31일에 입경하는데,³⁷⁾ 12월 26일 백춘배는 “가쿠고로가 한국으로 건너갈 때 김옥균으로부터의 서간 일괄(一括)을 가지고 왔다고 송병준한테 들었다. 위 송병준은 가쿠고로와 같은 배를 타고 귀국한 자”라고 진술했다.³⁸⁾ 송병준과 함께 귀국한 가쿠고로가 김옥균의 서한 한 묶음을 가져왔다는 매우 중요한 진술이다. 굳이 편지 ‘한 묶음’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여기에 『갑신일록』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쿠고로가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인 11월 1일경 가쿠고로는 면양정(面洋亭)이란 곳에서 가이 군지에게 대원군이 김옥균을 만나려 하니 도쿄에 가서 데려오지 않겠냐고 의뢰한다. 가이는 여비라도 주면 자신이 비밀리에 가겠다고 응낙했다. 가이가 김옥균의 숙소조차 모른다고 하니 가쿠고로가 김옥균의 주소는 ‘東京 京橋區 鎗屋町 八番地 富藤方 岩田秋作’³⁹⁾이라고 알려 준다. 가이는 가쿠고로로부터 들은 얘기를 김옥균의 심부름꾼인 고사가 가메지로(小坂龜次郎)에게 편지로 알렸다. 11월 10일에는 가쿠고로가 가이에게 편지를 보내, 이번 배편으로 지금까지의 모습을 김옥균에게 편지로 알려 주도록 부탁하였다.⁴⁰⁾ 조선의 외아문에 고용된 가쿠고로는 조선 정부

35)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一卷(B03030199700 18/35 및 11-13/35).

36)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一卷(B03030199700 33/35).

37)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一卷(B03030199900 2/39).

38)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一卷(B03030200000 27/36).

39) 이 주소는 일본 경시청이 파악한 것과 완전 일치한다. 미국에서 돌아와 1885년 12월 31일 도쿄에 도착한 박영효는 이 주소의 집에서 김옥균과 동숙한다(『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三卷B03030201700 12/50)

와 김옥균 양쪽에 받을 담근 일종의 이중간첩 역할을 하면서 정세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동한 것 같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바로 가이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걸 보면, 김옥균의 편지를 대원군에게 전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아마 김옥균이 대원군과 연계하려는 걸 알고 있던 가쿠고로의 김옥균 유인책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11월 중순 무렵 일본공사관 무관 가이즈 미쓰오(海津三雄)를 방문한 가이 군지는 가쿠고로가 “김옥균은 당시 일본 도쿄에 있지만 조선 정부에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대원군이 귀국한 것을 다행으로 여겨 동 군이 김옥균의 뜻에 감동하여 죄를 면하고 귀국을 허락한다고 속이면 반드시 믿고 귀국할 것이다. 그때 포박 처형한다는 의론이 정부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절로 도쿄에 가줄 것을 의뢰했다고 한다.⁴¹⁾ 사실 이 책략도 의정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가쿠고로의 건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정말 대원군을 미끼로 김옥균을 유인해서 조선 정부가 체포하도록 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회를 이용하여 김옥균과 몰래 통모하려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⁴²⁾ 11월 23일 구 자유당 인사가 대거 검거된 오사카사건⁴³⁾ 이

40)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一卷(B03030199700 30-32/35).

41)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一卷(B03030199700 11-13/35).

42) 『日本外交文書』19, 524쪽. 여기에 가이 군지를 11월 19일부터 경성영사관 경찰서에 유치했다는 기술이 있는데 11월은 12월의 착오이다.

43)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자유당이 해산되자 자유당 좌파 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郎)·고바야시 구스오(小林樟雄)·아라이 쇼고(新井章吾)·이소야마 세이페에(磯山清兵衛) 등이 폭약과 도검을 지참하고 조선에 건너가 사대당의 육열(六孽)을 암살하여 청일전쟁을 유도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일본의 입헌정치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검거된 사건. 1885년 11월 23일 나가사키에서 이나가키 시메스(稻垣示) 외 15명, 오사카에서 오이 겐타로·고바야시 구스오 외 9명을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日本外交文書』19, 517쪽) 수십 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짓을 일삼고 암살 대상인 6열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민영익을 수령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민영익을 독립당의 한 사람이라 하기도 했다. 구보타 쓰네키치(窪田常吉)는 6열을 이재원, 김기석, 민응식, 민영환, 민병석, 민종묵이라 했다(吉野誠, 『大阪事件における朝鮮』, 『東海大學紀要文學部』48, 1987). 곤도 임시대리공사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실권을 장악한 6열은 윤용렬, 안정옥, 이병진, 조준돈, 이윤용, 민궁식이고 혹은 안정옥 대신 홍재회를 넣기도 했다 한다(『在朝鮮近藤臨時代理公使報告韓廷大臣等ニ關スル風説及同國王移宮并ニ吳大徵歸國ノ餘聞ニ關スル件』A03023658200).

오사카사건의 멤버들은 조선에 들어갈 때 명분을 세우기 위해 김옥균을 옹립하려 접근했으나, 갑신정변에서 청군에 쓰러진 패배를 맞은 김옥균이 수십 명이 쳐들어가 사대당을 암살한다는 이들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국내에서는 이 사건과 뒤섞여 김옥균의 제거 계획이 전해지면서 한바탕 대소동을 연출했다. 일본 정부는 혹시 모를 잔당을 색출하기 위해 외무 소서기관

후 가쿠고로가 김옥균을 손절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을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郎) 대리공사에게 제일 먼저 알린 이가 가쿠고로이고, 다카히라가 김옥균 도당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가쿠고로는 가이 군지가 이미 경성에 잠입해 있다고 알려줬다.⁴⁴⁾ 이를 계기로 12월 19일부터 가이 군지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쿠고로는 20일부터 교동 박문국으로 거주지를 옮겨 김윤식 등의 비호를 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가쿠고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김옥균과의 通謀 관계는 물론 당시 김옥균이 집필한『갑신일록』에 관한 정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에서 본 것처럼, 원래 김옥균의 재거 계획이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계획의 중심에 대원군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이후 지운영(池運永) 사건까지 발생하여 더 이상 정변을 꾀하는 것이 불가능 하자, 김옥균은 일본 신문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표출하기에 이른다. “대원군은 원래 천하의 형세에 통하지 못하여 이로써 전에 잠깐 완고한 거동이 있었으나 금일은 이를 뉘우치는 모양이 있고 인심이 따르는 바이니, 원컨대 일시 국가의 전권을 대원군에게 맡기고 만일, 대원군이 과실이 있거든 전하께서 주권을 발휘하여 스스로 이를 바로잡음이 가합니다. 이것이 혹은 금일의 위급을 구하는 一策이 아닌가 합니까”⁴⁵⁾라고 대원군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고종에게 상소한 것이다.

구리노 신이치로(栗野愼一郎)와 경찰 25명을 급파했다. 도쿄마루를 타고 1885년 12월 21일 인천에 도착한 이래 이들은 인천과 서울의 일본 거류민을 전수 조사했다. 이노우에 외무경은 구리노에게 특별히 내밀한 훈령을 내려 이노우에 가쿠고로를 조사하고 송환하도록 했으나 외아문 독판 김윤식 등의 비호로 그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44) 『韓国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一卷(B03030199700 7-9/35).

45) 『朝野新聞』1886년 7월 8일. 이 상소문은 당시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東京日日新聞』(7월 9일), 『郵便報知新聞』(7월 10일)에도 소개되었다(琴秉洞, 『金玉均と日本: その滞日の軌跡』, 緑蔭書房, 1991, 267쪽).

3. 『갑신일록』 저술 목적

서론에서 밝혔듯이 김옥균은 『갑신일록』이 당시 ‘소이연’, 즉 그런 까닭이 있어 급히 쓴 것으로 실제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앞 절에서는 그 까닭에 해당하는 김옥균의 재거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제 갑신정변 당시의 사실과 다르게 서술된 부분을 『갑신일록』에서 추출하면 저술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갑신일록』을 읽다 보면 뫼렌도르프에 대한 적대감이 유독 눈에 띈다. 『갑신일록』 앞부분에 뫼렌도르프가 민영목·민영익의 무리에 따라붙어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거나, “조선을 위해서 제거할 해악은 당오전에 있지 않고 김옥균에게 있으니 마땅히 급히 그를 먼저 없애야 한다”라고 기술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 11월 23일 조에서는 “뫼렌도르프의 이간질로 작년 일본에서 허다한 곤역을 당했다”라고 했고, 11월 25일 기사에서는 다케조에 공사가 뫼렌도르프의 반간(反間)을 듣고 김옥균이 하는 것을 모두 방해했다고 기술하였다. 11월 23일 기사는 1883년 7월 2일 김옥균과 이노우에 외무경과의 300만 엔 외채 담판⁴⁶⁾을 말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을 뫼렌도르프의 이간질로 돌린 것이다. 이 담판에서 김옥균이 이노우에에게 뫼렌도르프가 참언(讒言)을 한다거나 이간질이 매우 나쁘다고 비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은 뫼렌도르프의 이간질이 아니라 김옥균이 저당으로 제시한 광산 채굴권에 이노우에가 흥미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다케조에 공사는 조선의 기반 시설 부족으로 광산개발이 일본에 이익이 크지 않고, 청이 하도록 하여 ‘타인의 힘으로 돌밭을 개간’하는 게 낫다고 이노우에 외무경에게 보고해 둔 상태였다.⁴⁷⁾

위와 같이 김옥균이 『갑신일록』에서 뫼렌도르프에 대하여 적대감을 드러낸 것은, 앞서 보았듯이 그를 죽이는 것이 재거 계획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옥균은 뫼렌도르프가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46) 『井上外務卿朝鮮人金玉均ト談話筆記』(A03023653800).

47) 1883년 2월 9일 『機密信』 제6호(A03023651600 26-28/76).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뮐렌도르프는 도주한 개화당의 체포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다.

뮐렌도르프는 인천으로 도주한 개화당 일행을 추격해 와서, 다케조에 공사의 알선으로 치토세마루(千歳丸)에 승선한 개화당 일행의 하선을 다케조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다케조에게 어쩔 수 없이 하선을 허락했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치토세 마루의 선장 쓰지 가쿠사부로(辻覺三郎)의 거절로 김옥균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⁴⁸⁾

뮐렌도르프는 도주한 개화당 일행의 체포·인도를 위한 전권 부대신⁴⁹⁾으로 임명되자 독일인을 미리 일본으로 보내 김옥균을 색출하도록 했다. 푸트(L. H. Foote) 공사의 부인이⁵⁰⁾ 나가사키 체재 중인 1월 9일에 어떤 독일인이 김옥균 사진을 보여주라고 해서 보여주었더니 사진을 달라고 해서 거절했다 한다. 이 독일인이 뮐렌도르프가 보낸 자라고 확인한 푸트 부인은 나가사키 현령 이시다 에이키치(石田英吉)에게 도쿄 신바시(新橋)의 사진사 마루키 리요(丸木利陽)가 김옥균의 사진을 발매하지 말도록 요청했다.⁵¹⁾ 푸트 부부는 갑신정변 때 일본공사관으로 피신하지 못한 일본인 16명을 미국공사관에서 보호해 주었다 하여 2월 16일 천황을 내알현(內謁見) 했으므로⁵²⁾ 김옥균이 도쿄에서 푸트 부부를 만나 이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뮐렌도르프는 서상우와 함께 3월 17일 외무성에 가서 대역범(大逆犯)을 체포하여 넘겨 줄 것을 요구하고⁵³⁾ 3월 19일에는 조희문을 보내 난적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유혁로, 이규완, 변수, 정난교(鄭蘭敎) 등의 체포·인도를 요구했다.⁵⁴⁾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양국 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만국공법에 의거 국사범을 넘겨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48) 柳赫魯, 「甲申亡命の思出」, 三城景明編, 『韓末を語る』, 朝鮮研究社, 1930, 16~17쪽.

49) 전권대신은 서상우인데 뒤에 사절 명칭을 흠차대신·부흠차대신으로 바꾸었다.

50) 『윤치호일기』에 일기에 따르면 푸트 공사 부인은 1884년 12월 25일 군함 트렌톤호를 타고 나가사키로 향하고, 푸트 공사는 1885년 1월 22일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51)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一卷(B03030199300 8-9/40).

52) 『朝鮮國在留米國公使夫妻并伊國公使賜謁ノ件』(A01100288200 1-4/20)

53) 박대양, 「東槎漫錄」, 『국역 사행록 해행총저』 16, 한국학술정보, 2008, 533쪽.

54)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第一卷(B03030199300 10/40)

원래부터 조선의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뫼렌도르프와 불화한 데다가 위와 같은 경위가 더해져 김옥균은 제2의 정변 계획에 뫼렌도르프의 제거를 포함했고, 이런 적대 의식이 『갑신일록』에 반영된 것이다.

『갑신일록』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기사 중의 하나가 11월 29일 조이다. 김옥균이 入侍하여 밤새도록 청불전쟁, 청일 간의 불화, 러시아의 동점, 당오전의 폐단, 뫼렌도르프를 잘못 고용한 일, 간신들이 청을 빙자해 권세를 부리는 일 등을 상주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면 프랑스와 동맹한 일본의 승산이 있으니 이 기회에 독립하기 위해서 청의 주구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왕이 김옥균에게 전권을 맡기고 그 표시로 친히 이름을 쓰고 옥새를 찍은 칙서를 주었다는 내용이다.

『윤치호일기』의 이날 일기에는 “저녁때 古愚(김옥균의 호)가 미국 공사를 방문하다. 미국 공사는 뜻있는 사람들을 널리 모아 조용히 시기를 기다리되 급히 앞으로 나아가 도리어 개화하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고우가 옳다고 하였다. 밤에 예궐(詣闕)하다. 2경(二更) 말부터 5경(五更) 초까지 눈을 붙이고 곧 세자를 모시고 밤을 지내다. 새벽에 물러나 집으로 돌아오다”⁵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옥균이 밤새도록 예궐했다면 윤치호가 이 일을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기술한 「메이지 17년 조선 경성변란의 시말(明治十七年朝鮮京城變亂の始末)」에도 “김옥균은 가까운 별장에 가고 그다음 날 중대장 무라카미(村上) 씨를 초대하여 이런저런 일을 얘기하고 11월 29일 경성으로 돌아왔다. 그다음 날 박영효 집에서 모여 이윅고 대신 참살의 실행 얘기를 하면서 일본 壯士를 쓸지 말지의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의론은 있었지만 먼저 조선인의 손으로 하고 일본인은 후위를 맡도록 했다”⁵⁶⁾라고 김옥

55) 『윤치호일기』 제1권 1884년 11월 29일.

56) 「明治十七年朝鮮京城變亂の始末」, 『福澤全集』 続 第7卷, 岩波書店, 1933, 492쪽.

「明治十七年朝鮮京城變亂の始末」의 편자 주에는 “김옥균·박영효 등은 일이 실패하자 일본으로 도망 와서 잠시 선생의 댁에 잠복하였다. 본문은 선생의 수기이지만, 그 사실은 그 후 김옥균이 기술한 『갑신일록』과 대동소이함을 보면, 선생은 주로 김옥균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일 터이다”(『福澤全集』 續 第7권, 1934, 岩波書店, 505쪽)라고 하였다.

이 「메이지 17년 조선 경성변란의 시말」(이하 「시말」로 줄임)은 1933년 후쿠자와 전집에 수록되기

균이 별장에 갔다가 서울에 돌아온 사실만 기록했다. 만약 전권을 위임하는 칙서를 고종에게서 받았다면 이 사실을 후쿠자와에게 말하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 「시말」의 전체 기록 어디에도 전권 위임 칙서 얘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박영효도 『갑신일록』이 1935년 간행된 『고균』 잡지에 일본어로 번역되어 연재되자 그 문제점에 대해 개진하는데, “고균 수기에 따르면 갑신정변은 애초부터 대군주와 음謀하여 결행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착오입니다”⁵⁷⁾ 라고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위의 『갑신일록』 11월 29일 기사는 정변 5일 전에 국왕이 전적으로 쿠데타에 동의했다는 것인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다. 개화당은 국왕에게 계획을 발설하면 왕비를 통해 반대당에 누설될 것을 우려하여 자세한 계획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대신들을 암살해도 고종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⁵⁸⁾ 이 기사는 김옥균이 정변의 정당성을 천명

전에, 강제 병합 직후에 『時事新報』에 연재되었다. 연재하기 전 1910년 8월 22일자 광고성 기사에 “외교 기밀에 관한 것이 많아 선생의 생전에 이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깊이 껴잡 밀바닥에 감추었지만 지금 이를 공개해도 지장 없어” 곧 연재한다고 하였다. 외교 기밀이란 일본 정부가 적극 개입한 외교 기밀이 수록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이 「시말」은 『갑신일록』보다 먼저 작성되었으나 나중에 공개하게 된 것이다.

예고한 것처럼 이 「시말」은 8월 30일부터 「京城變亂始末」(明治十七年事件)이란 제목으로 9월 7일까지 모두 9차례로 매일 연재되었다. 1회 연재 모두에 “메이지 17년 경성변란 시말은 고 후쿠자와 선생의 수기이고, 이 기사는 김옥균·박영효·이노우에 가쿠고로·이마이즈미 히데타로(今泉秀太郎) 씨 등의 담화와 일기에 따라 기록한 취지의 메모이다. 당시 金朴 기타 개혁파의 영수는 도망쳐 我國에 왔어도 일본 정부의 의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일신의 위험을 염려하여 몇 달 동안 시바(芝) 미타(三田)에 있는 선생의 집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이 기사의 사실은 그 잠복 중 주로 김옥균의 담화에 따라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마이즈미 히데타로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처조카로, 다케조에 공사가 군함 日進艦 편으로 다시 부임할 때 공사관 부속 유학생 명목으로 동반하여 1884년 12월 29일 오후 인천에 도착했다(C10101551500; C10101521600). 따라서 이 「시말」은 주로 김옥균의 얘기를 담고 있지만 가쿠고로와 이마이즈미 등의 일기를 참조했기 때문에 날짜 등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57) 「박영효 선생의 서한」, 『古筠』 제2호, 1935년 5월 15일, 7쪽.

58) 11월 4일 박영효 집에서 박영효, 홍영식, 김옥균, 서광범이 외무서기관 시마무라 히사시(島村久)와 밀담했을 때,

“시마무라: 귀하들의 계획은 국왕께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김옥균: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 까닭은 국왕에게 모두 발설하면 왕비가 반대 당에 누설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광범: 민영익·한규직·윤태준 등 3, 4명을 암살한 일이 우리가 한 것으로 밝혀져도 국왕이 이 론을 제기하는 일은 전혀 없을 터이니 그 점은 안심하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정변 전인 이 날짜에 배치한 것이다. 특히 전권 위임 칙서 운운은 김옥균의 노림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앞에서 본 것처럼,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할 때 옥쇄가 찍힌 백지를 지니고 왔을 개연성이 높다. 이걸 고토 쇼지로 등에게 써먹으려면 이 칙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는 장치가 필요하여 이렇게 허위의 서술을 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옥균의 재거 계획의 중심에는 대원군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대원군에게 올리는 자신의 편지를 대원군에게 보내라고 요청한 이재원 앞으로의 편지는 9월 3일에 작성한 것이고, 이 날짜는 『갑신일록』 집필 시작 시점과 겹친다.⁵⁹⁾

『갑신일록』 11월 2일조에 다케조에 공사가 임오군란 전보금 50만 엔 중에서 40만 엔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종을 밀대(密對)했을 때, “대원군이 잡혀있는 것은 사리에 있어 부당(大院君被拘於理不當)”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이날 대원군과 관련하여 논의한 것은, 1884년 봄에 유포된 대원군이 청병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문에 관한 것이었다. 다케조에 공사는 이 소문에 대해 “무릇 신하로서 다른 나라의 병력을 빌려 그 군주에게 대항하려는 것은 천지간에 있을 수 없는 도리입니다”⁶⁰⁾라고 하여 소문과 관련된 대원군의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이날의 대화에서 대원군 拘留의 부당함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그것도 자신의 대화가 아니라 다케조에 공사의 대화를 가져와 『갑신일록』에 왜곡하여 기술한 것은 “대원군을 모셔 오고 조공 허례를 철폐한다”는 정령 제1조와 부합하도록 이렇게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갑신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개화당이 그들과 정치이념이 다르고 또한

(『伊藤博文文書』 3, 45면;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편, 2015 『近代韓國外交文書』 제8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6쪽).

59) 1885년 9월 5일자 『朝野新聞』의 “최근에 긴자 부근에 우거하면서 일제 손님을 사절하고 그옥한 창 아래에서 붓을 놀려 지금까지 겪은 기구하고 험난한 일들을 저술하고 있다고 한다. 저술이 나오면 실로 새로운 사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기사를 통해 9월 초에 집필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60) “抑臣トシテ他國ノ兵力ヲ藉リ其君主ニ抗セントハ天地間ニ有ル間敷道理ニ候”(『伊藤博文文書』 제3권, ゆまに書房, 2007, 10쪽).

개혁을 무산시킬지도 모를 대원군을 데려온다는 것은 현실 정치의 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정변 당시에 대원군을 조선에 보내려고 한 것은 개화당과 대척점에 있었던 청 세력이었다. 정변 소식을 보고받은 이흥장이 원세개의 숙부 원보령(袁保齡)의 건의를 수용해, 개화당의 친일 반청 노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대원군을 한국시키려 하였다.⁶¹⁾ 조공의 폐지도 개화당이 바라는 바이지만 청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표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갑신일록』은 대원군에게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었다. 필자는 『갑신일록』 저술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추정한다.

정변 당시 대원군의 환국은 조보에 발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時事新報』 1886년 3월 8일 자에 ‘조선 사정’이란 제목으로 아래의 기사가 실려 있다.

김옥균이 3일 천하 때에 당시 중국[支那]에 유수(幽囚)되어 있던 대원군을 모셔 오자고 발의하여, 대원군 당은 이를 크게 고맙게 여기고 지금까지도 김옥균을 좋아하는 자가 많다는 풍설은 오로지 일본인 사이에 유행해도, 조선인 중에는 官民 모두 결코 그런 설을 주장하는 자가 없다. 소생도 자주 조선인에게 이 일을 질문해도 오로지 아는 이가 없고 대부분은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놀라는 자들 뿐이다.

갑신정변 때 대원군을 모셔 오자는 얘기는 조선 사회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기사이다. 일본에서 유행한 것은 『갑신일록』을 통해 전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소생’은 이노우에 가쿠고로다. 대원군을 내세워 제2의 쿠데타를 획책한 김옥균의 계획이 실패한 시점에서, 『갑신일록』 집필에 일정 정도 관여한 가쿠고로가 진실의 일단을 고백한 것이 아닐까.

아래의 <표>는 갑신정변 당시의 이른바 개혁 인사를 『갑신일록』에 기술

61) 權錫奉, 『清末 對朝鮮政策史研究』, 일조각, 1986, 308-317쪽.

된 것과 실제의 그것을 비교한 것이다.

〈표〉『갑신일록』에 기술된 인사와 실제 인사의 비교

이름	『갑신일록』에 기술된 인사	정변 당시의 인사	비고
李載元 (大君主從兄)	영의정	좌의정	
洪英植	좌의정	우의정	
朴泳孝	前後營使, 左捕將	좌동	
徐光範	좌우영사, 代理外 務督辦, 우포장	좌동	정변 전 외아문 독관 김홍집, 협관 김윤식
李載晃 (大院君嗣子)	左贊成 겸 左右參贊		정변 당시 이재면은 保定府에서 대원군 시종
申箕善	이조판서 겸 홍문관제학	우승지	신기선을 이조판서와 대제학에 임명하려 하였으나 정변 실패로 교지를 내리지 못하였다고 함(『梅泉野錄』 권1, 상)
金允植	예조판서	좌동	
李載完 (李載元弟)	병조판서	좌동	
尹雄烈	형조판서	좌동	
洪淳馨 (王大妃之姪)	공조판서	承候官	
金弘集	한성관윤	좌동	
趙敬夏 (大王大妃之姪)	判義禁府事		
李建昌	藝文館提學		정변 당시 이견창은 喪中. 당시 예문관제학은 洪祐吉
金玉均	호조참판	좌동	
徐載弼	병조참판 겸 正領官	後營正領官	
朴泳敎 (朴泳孝之伯兄)	도승지	좌동	
趙同晃 (大王大妃之從孫)	동부승지	우부승지	
閔肯植	同知義禁府事		당시 민강식은 曹司衛長
金文鉉 (順和宮之弟)	병조참의		당시의 병조참의는 趙翼永
李熙善	水原留守		정변 당시 이희선은 경상좌수사, 당시의 수원유수는 金箕錫
李載純	平安監司		당시의 평안감사는 閔應植. 민응식도

(大院君至親)			암살 대상이었으나 외직에 있어 화를 면함
趙漢國 (大院君外孫)	說書		설서는 세자시강원의 정7품 벼슬. 조한국은 대원군 사위인 趙慶鎬 아들
李竣鎬 (大院君孫卽李載崐之子)	洗馬		세마는 세자의위사의 정9품 벼슬. 이준용은 1886년 3월 27일에 과거 급제

좌의정 이재원이 영의정으로 격상되어 기술된 것은 김옥균이 이재원을 매개로 제2의 정변을 계획한 일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⁶²⁾ 이재면, 조정하, 이견창, 민궁식, 김문현, 이희선, 이재순, 조한국, 이준용 등은 정변 당시의 인사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들이다. 이 중에 이재면, 이견창, 이희선, 이재순, 조한국, 이준용은 대원군계 인물이다. 특히 대원군의 맏아들 이재면이 정변 당시 保定府에 있어 벼슬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좌찬성 겸 좌우참찬에 임명되었다고 기록한 것, 외손자 조한국(1865-?)이 說書(정7품)라는 하급 관리임에도 기록된 점, 그리고 과거에도 급제하지 않은 손자 이준용(1870-1917)이 洗馬(정9품)에 임명되었다고 한 것은 모두 대원군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4. 맺음말

정변 실패로 일본에 망명한 김옥균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1885년에 제2의 정변을 구상하였다. 국내의 개화당 세력이 절멸된 상태에서 이재원이 강화유수가 되고 김옥균은 일본에서 무기와 병력을 조달하여 정변을 일으켜 대원군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이 구상에 부합하도록 『갑신일록』이 사실과 다르게 서술되었다. 대원군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른바 정강 제1

62) 『윤치호일기』 1884년 12월 5일조에 磐石(홍영식)이 영의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홍영식을 재상에 임명하라는 12월 4일의 전교로 인하여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5일의 전교에 이재원이 좌의정, 홍영식이 우의정으로 임명되었다. 갑신정변 당시 영의정은 공석이었다.

조에 “대원군을 곧 모셔온다”는 조항을 넣고 혁신 인사안에 대원군 계통의 인물을 대거 채워 넣었다. 『갑신일록』에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생생한 갑신정변의 현장이 기술된 일급 사료이지만 집필 당시 김옥균이 기도한 제2의 정변 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실을 왜곡한 부분도 섞여 있다. 그래서 김옥균이 『갑신일록』은 당시에 까닭이 있어 급히 쓴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한편 고종과 민씨 척족은 이재원을 강화유수로 임명하여 김옥균을 유인 하였으나, 일본에서 오사카사건이 발생하여 구 자유당계 인사들이 검거되면서 김옥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이후 자객 지운영을 파견하여 김옥균을 암살하려 한 사건이 발각되자 김옥균은 고종에게 공개적으로 상소하여 대원군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박영효, 서광범 등을 등용할 것을 호소하였다.

■ 참고문헌

1. 사료

- 『갑신정변 관련자 심문 진술 기록』(박은숙 역, 아세아문화사, 2009)
- 『甲申政變과 金玉均』(閔泰瑗, 국제문화협회, 1947)
- 『古筠』제1호-제3호(古筠會, 1935)
- 『舊韓國外交文書』
- 国事犯事件公判傍聴筆記 上, 下(浪華新聞社, 1887)
- 琴秉洞文庫 소장 김옥균 관계 자료(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金玉均』(葛生玄暉, 民友社, 1916)
- 『金玉均傳』(古筠記念會, 慶應出版社, 1944)
- 『金玉均傳』上卷, 慶應出版社
- 『金玉均全集』(아세아문화사, 1979)
- 『東槎漫錄』(『국역 사행록 해행총저』 16, 한국학술정보, 2008)
- 『徐載弼博士自叙傳』(金道泰 편, 을유문화사, 1972)
- 『승정원일기』
- 『袁世凱全集』(河南大學出版社, 2013)
- 『尹致昊日記』
- 『伊藤博文文書』(伊藤博文文書研究會 監修, ゆまに書房, 2007)
- 『日本外交文書』
- 自由党史 下(宇田友猪, 和田三郎 共編, 五車樓, 1910)
- 『井上角五郎君略傳』(井上角五郎君功勞表彰會, 森印刷所, 1919)
- 『井上角五郎自記年譜』(井上角五郎, 慶應大學福澤諭吉センター 소장)
- 『井上角五郎先生伝』(井上角五郎先生伝記編集會 편, 1943)
- 『朝鮮甲申事變稿本』(사노 향토박물관 소장)
- 『朝鮮甲申日記』(사노 향토박물관 소장)
-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 1권(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B03030200000)
- 『韓國借款關係雜纂』 1권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B04010719200)
- 『韓末を語る』(三城景明編, 朝鮮研究社, 1930)
- 『漢城洒殘夢』(井上角五郎, 春陽書樓, 1891)

2. 저서

- 강범석, 『잃어버린 혁명 - 갑신정변 연구』, 숲, 2006.
- 高橋秀直, 『日清戦争への道』, 東京創元社, 1995.
- 琴秉洞, 『金玉均と日本: その滞日の軌跡』, 綠蔭書房, 1991.
- 김용구,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원, 2004.
- 김중학,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일조각, 2017.
- 大阪事件研究會 편, 『大阪事件の研究』, 柏書房, 1982.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김옥균』, 1964(역사비평사 복간, 1990)

李光麟, 『開化黨研究』, 일조각, 1973.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下, 朝鮮總督府, 1940.

彭澤周, 『明治初期日韓清關係の研究』, 塙書房, 1969.

한국정치외교사학회, 『甲申政變研究』, 평민사, 1985.

Harold F. Cook, 1972 *Korea's 1884 Incident-Its Background and Kim Ok-kyun's Elusive Dream*, Royal Asiatic Society

3. 논문

姜玲子, 「甲申政變の問題點 - ‘甲申日錄’の検討を通じ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2, 1985.

吉野誠, 「大阪事件における朝鮮」, 『東海大學紀要文學部』 48, 1987.

김봉진, 「甲申日錄에 관한 一研究」, 『韓國學報』 42, 1986.

김중학,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와 갑신정변(甲申政變): 미간사료 『井上角五郎自記年譜』에 기초하여」,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13-1, 2014.

金河元, 「金玉均のクーデタ再起運動と『甲申日錄』執筆」,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8, 1991.

김흥수, 「갑신일록」의 진위에 대한 재고, 『奎章閣』 48, 2016.

茂木克美, 「『須永文庫』의 甲申政變關係資料」, 『東アジア近代史』 23, 2019.

山邊健太郎, 「甲申日錄の研究」, 『朝鮮學報』 17, 1960.

糟谷憲一, 「甲申政變・開化派研究の課題」,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2, 1985.

青木功一, 「金玉均傳原稿と雜誌古筠」,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 1981.

Kim Ok-gyun's purpose in writing *Gapsin-illok*

Kim Heung Soo*

Following his unsuccessful rebellion, known as Gapsin-jeongbyeon, Kim Ok-gyun went into exile in Japan. It was during the autumn of 1885 that he composed *Gapsin-illok*. There are two schools of thought regarding the purpose of writing the *Gapsin-illok*. The first school of thought posits that the primary objective was to 'expose Japan's betrayal'. The second school of thought asserts that the intention was to 'declare the righteousness of the situation'. However, Kim Ok-gyun confessed that he authored the *Gapsin-illok* for his own reasons at the time, and that the record was not true. In other words, the contents of the *Gapsin-illok* were reconstructed according to Kim Ok-gyun's needs at the time of writing. By examining Kim Ok-gyun's activities during this perio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overthrow, and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facts and the content of the *Gapsinillok*, it becomes possible to discern the purpose behind the composition of the *Gapsin-illok*.

Following the failure of the overthrow, Kim Ok-gyun, who had gone into exile in Japan, could not abandon his regrets and attempted to regain power. With the reformist party in Korea having been eradicated, he sought to attract Heungseon Daewongun through Lee Jae-won and mobilise troops in Japan with the support of Goto Shōjiro to orchestrate a second overthrow. In accordance with this plan, *Gapsin-illok* included a clause in Article 1 of the so-called Articles of Confederation stating that 'Daewongun will be brought in soon,' and filled the list of innovators with people from Daewongun's entourage.

* Hongik Univ./Associate Prof.

Furthermore, the description of King Gojong entrusting Kim Ok-gyun with a clandestine directive to assume complete authority on 29 November, prior to Gapsin-jeongbyeon, served as a stratagem to legitimise the collusion with Goto Shojiro. Consequently, the *Gapsin-illok* is regarded as both a document of the overthrow and a false record of the second overthrow, necessitating rigorous documentary criticism.

Key words : Kim Ok-gyun, Gapsin-illok, Gapsin-jeongbyeon, Heungseon Daewongun, Lee Jae-won, Goto Shojiro